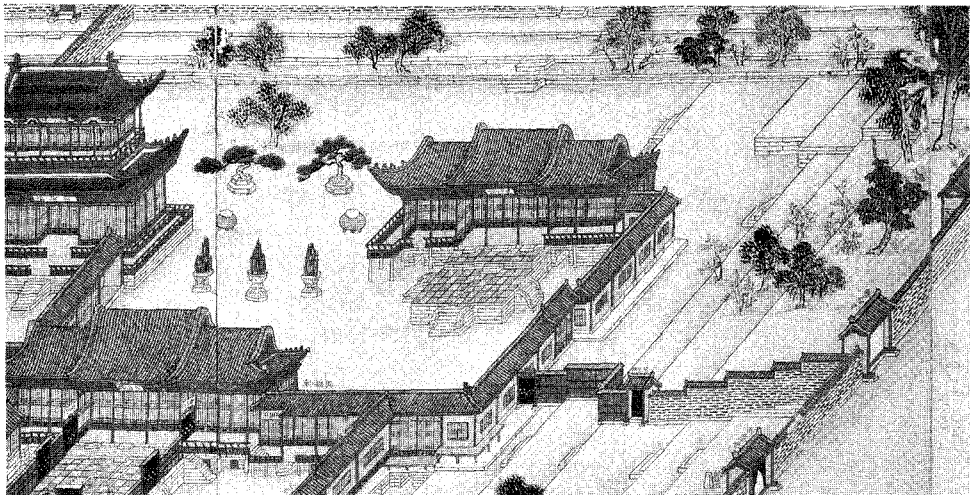


창덕궁 집상전과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집상전수개도감의궤』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교수)

창덕궁 집상전과 『集祥殿修改都監儀軌』

集祥殿은 1667년(현종8년) 조선 제17대 왕 현종의 명에 의해 왕대비인 仁宣王后(효종비)가 거처할 대비전으로 지은 건물이다. 그 위치는 대조전 동북방향으로, 대조전과는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었다. 「동궐도」에 건물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장방형의 긴 건물에 중앙부분 지붕이 좌우 측면보다 한 단 높게 되어 있고 지붕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대조전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집상전 왼편에는 남쪽방향으로 길게 행각이 놓여서 대조전 동편 행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본래 集祥堂이라는 별당 건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새로 대비전을 지은 것이다.



<그림> 동궐도에 그려진 집상전과 그 주변

효종비인 인선왕후는 현종의 모후이기도하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왕대비가 되어 거처를 창경궁 통명전으로 삼고 있었는데, 현종7년에 와서 통명전에 돌이나 기와조각이 날아들고 의복에 불이 붙는 이변이 생겼다. 그에 따라 거처를 임시로 경덕궁으로 옮겼는데, 이듬해에 와서 왕이 이르기

를,

“자전께서 정전(正殿)에 입어하시지 못한 지 지금 이미 반 년이나 되었으니, 사체에 있어서 온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또한 어땡겠는가. 별도로 전각 하나를 세워 편안하게 계실 곳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것도 몹시 온당치 않으니, 우선 옛 궁궐에서 한 칸을 헐어다가 전(殿) 동쪽의 옛 터에다 건립하고자 한다.”(『현종실록』, 현종8년 11월 11일)는 명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옛 궁궐이라고 한 것은 경덕궁을 가리키며 경덕궁의 集禧殿을 철거해서 새로 집상전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본래 창덕궁에는 왕대비전으로 수정전이 있었지만 전각이 비좁았기 때문에 효종8년에 새로 만수전을 지어 대비전으로 삼고 인조비인 장렬왕후의 처소로 삼았다. 현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장렬왕후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대비는 창경궁 통명전에 모신 것인데 이번이 생겨서 다시 대비전 하나를 더 지은 것이다.

건물은 기존에 대비전으로 사용하던 만수전이나 통명전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여 중앙에 정청을 두고 좌우에 대청으로 온돌방을 둔 모습이었으며 통명전이나 대조전처럼 지붕은 용마루를 올리지 않은 무량각으로 하였다. 실내도 왕대비 처소에 걸맞게 화려하게 꾸민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도중에 공사 책임을 맡았던 김수홍은 실내에 값비싼 당주홍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대파인 김만중으로부터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왕대비의 처소로 쓰여서, 숙종 때에도 경덕궁에서 창덕궁으로 돌아오면서 왕과 중전은 대조전으로 들어가고 왕대비인 명성왕후는 집상전에 환어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숙종실록』, 숙종7년 7월24일) 그러나 왕대비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왕 자신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도 종종 이용되었다. 현종 자신은 집상전이 완성되고 2, 3년 동안 이 건물에 들러 침을 맞거나 의관에게 진찰을 받기도하였다. 이것은 집상전이 대조전에 인접해 있어서 왕이 잠시 들르는데 편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집상전은 순조9년 실록에 이 건물에 근무하는 내관 8일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 때까지 건물이 존속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종 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궁궐지』에는 ‘今毀’라고 적혀서 이 때는 건물이 사라지고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창덕궁은 순조33년 10월에 대조전, 회정당, 징광루, 옥화당, 양심합이 모두 불에 타는 큰 화재를 당했는데 이 때 집상전도 화재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 후 내전의 주요 전각들은 1년 만에 대부분 본래 위치에 다시 재건되었다. 그러나 재건된 건물 이름에 집상전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집상전은 재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집상전은 현종 8년에 창덕궁 내전 영역에 왕대비전으로 나타났다가 약 170년이 지난 19세기 초에 와서 소리 없이 사라진 전각인 셈이다.

집상전의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집상전수개도감의궤』가 작성되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의궤는 어람용이 강화사고에 보관되었고 나머지는 그 소장처가 불분명한채로 있었다. 강화사고에 있던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인들이 약탈해갔고 의궤는 지금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건 때 『집상전수개도감의궤』도 함께 약탈되었으며 이 의궤는 1985년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의궤를 조사한 박병선씨의 저서 『조선조의 의궤』¹⁾

1)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 파리소장본과 국내소장본의 서지학적 비교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에도 소개된 바 있다. 『집상전수개도감의궤』은 복사본이 국내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규장각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 국내 도서관에 정식으로 소장된 것이 없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파리 제8대학(소르본느)의 도미니크 바르조(Dominique Barjot) 교수와 부인인 박랑리박사의 도움으로 이 의궤의 마이크로필름본이 조선시대 의궤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팀²⁾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동 의궤의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한다.

『集祥殿修改都監儀軌』의 체제와 내용

동 의궤에 대해서는 이미 박병선씨의 조사 시 표지가 없는 낙본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5년 외교통상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의궤조사³⁾에서도 원본을 열람한 결과 표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체 65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에 입수된 마이크로필름은 앞뒤의 파리 도서관의 필름작업 표시 부분을 제외한 본문이 전체 105면(중복촬영된 1면 제외)으로 되어 있다. 전체 65장이라면 면수로는 적어도 그 배수에 가까운 130면이 되어야 하지만 105면만으로 된 것은 아마도 글씨가 없는 부분을 필름작업에서 제외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마이크로필름본에 의하면 『집상전수개도감의궤』는 (座目), 啓辭秩, 移文秩, 甘結秩, 郎廳所掌稟目秩, 監造官二員所掌手本秩, 諸色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일 앞부분의 좌목은 결락되어 전체 내용을 알 수 없고 堂上書吏부터 郎廳書吏, 監造官書員, 庫直의 인명만이 확인된다. 아마도 결락부분에는 책의 간행연도와 표제, 그리고 공사담당자인 提調와 郎廳, 監造官의 명단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사질에 의하면 이 공사의 제조는 병조판서인 洪重普와 호조판서인 金壽興이 맡았고 낭청은 공조정랑 鄭時亨이 맡은 것을 알 수 있다. 감조관은 두 사람인데 당초 선공감감역관 洪濟亨과 趙汝耘이 임명되었으나 홍계형이 지병이 있어 자문감역인 申晟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⁴⁾

계사질은 정미(현종8년) 11월 11일부터 이듬해 무신년(현종9년) 정월 17일까지 기사를 모았다. 무신년 11월 11일에 왕이 자전을 위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을 전교하고 공사를 주관할 사람으로 병조판서 洪重보와 호조판서 金수홍을 불러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는 내용이 보인다. 공사주관청은 修改廳으로 이름을 정했다. 이 날 金수홍은 새로 지을 건물의 방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왕에게 묻고 왕은 동북방으로 할 것을 이르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튿날에는 공사일정이 정해지는데, 11월13일에 경덕궁 집회전을 헐기 시작하고 11월26일에는

2) 필자를 연구책임자로 해서 이강근(경주대), 홍석주(서일대)교수를 비롯한 12명의 연구원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3년간 '조선시대 영건의궤를 통한 한국건축의 기술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오랜 접촉 끝에 지난 2006년 8월에 박랑리박사로부터 『집상전수개도감의궤』의 마이크로필름본을 전례 받았다.

3) 이 조사는 2002년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는 김문식, 신병주, 이종득, 정경희, 김혁,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국장각의궤 조사연구』(외교통상부, 2003)으로 간행되었다.

4) 『집상전수개도감의궤』 계사질 정미 11월28일 계

開基, 12월8일에는 定礎를 하고 立柱上樑은 12월 20일로 결정된다. 이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사소한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에 이어 12월 8일 기사에는 상량문과 상량의회가 실리는데 상량문은 당시 대제학으로 있던 金壽桓이 지었다. 한편 12월 29일부터 정월2일까지는 歲時를 맞아 공사를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듬해 무신년 정월14일 기사에는 단청이 완성되어 각도의 화승들을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보이고 마지막 기사인 정월 17일 기사에는 수개청에서 이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제조를 맡은 신하는 당일로 임무를 파하고록 하되 양상도회 즉 지봉마루의 양성바름은 날씨가 차서 낭청과 감조관은 남아서 일을 더 해야 할 것을 왕에게 아뢰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같은 날 수개청은 일의 전말을 기록한 등록2건을 작성하여 낭청이 내용을 살펴 수정하고 들여야 할 것을 아뢰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이문질은 수개청에서 한성부나 각 군영 등에 보낸 관련 문서를 모았는데 주로 자재를 경덕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수레의 조달이나 새로 만들어야하는 철물 제작의 협조를 구하는 문서들이다. 뒤 이은 감결질 역시 공사에 필요한 사소한 물품의 조달 등에 대한 문서를 모았는데 제일 마지막의 무신년 정월17일 기사에서는 수개청에서 등록을 만드는데 필요한 백지3권, 황필진묵 각 둘을 호조, 공조, 장흥고에 요청하는 문서와 본청의궤처소 즉 수개청에서 의궤를 작성할 때 작업할 장소를 사간원에 배설한다는 뜻을 알리는 문서가 있다. 또 수개청에서 일하는 守直軍, 米布直, 茶母 등은 의궤가 다 완료될 때까지 일할 인원을 정할 것을 병조, 형조, 위장청에 알리는 문서를 실었다. 그 뒤에 殿額門號書寫官이라는 항목에는 각 전과 문 이름과 이를 쓸 담당자 이름을 적고 이어서 장인과 모군에게 지급할 매달의 요포 액수, 수레를 사용하는 비용 및 장인과 모군에게 실제 지급된 요포의 총액을 적었다.

품목질은 앞에 낭청소장이라고 명시하여 품목질의 내용이 낭청이 담당하는 일임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은 앞부분에 단청이나 건물을 다시 칠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수개청 당상에게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사는 무신년 정월5일까지의 관련 사항들을 날짜 별로 수록하였다. 그 다음에는 경덕궁 집회전에서 철거해 온 자재로 공사를 다 충당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재목과 기와 등에 대해 조달처와 자재 수량을 13면에 걸쳐 상세히 수록하였다. 다음은 수본질인데 앞에 監造官二員所掌이라고 명시하여 이 일은 감조관의 소관업무임을 밝혔다. 내용은 철물을 위시해서 달고나 물건을 운반하는 썰매, 돛자리, 솥돌 등 자질구러한 물품의 조달이 주를 이루고 역시 집회전에서 뜯어온 것으로 부족한 철물이나 기타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상세히 나열하였는데 말미에는 常瓦, 女防草, 夫防草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는 제색공장질로, 첫머리에 화원이 있고 다음에 각도 화승의 이름이 출신지역별로 나열되었는데 경기도에서 10명, 원양도에서 10명 충청도에서 15명, 전라도에서 15명이고 각도의 여러 지역에서 1명 내지 2명씩 이름이 올라있다. 뒤 이어 목수, 석수, 야장, 줄장, 니장 등 17직종의 장인과 각자의 이름을 밝혔다. 또한 목수, 석수, 야장, 니장, 개장, 칠장에 대해서는 편수의 이름도 밝혀놓았다. 제일 마지막 면에는 의궤를 작성한 당상과 낭청의 이름과 수결이 보이는데 당상은 병조판서 홍중보와 호조판서 김수증, 낭청은 호조정랑 정시형의 이름이 있고 홍중보와 정시형의 수결이 남아있다.

표제에 대한 의문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입수한 『집상전수개도감의궤』에는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책자의 제목 문제이다. 동 의궤의 정미 11월 16일 계사에 의하면 이 공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은 ‘수개청’으로 하라는 전교가 실려 있고 이후 모든 공사 주관 기관 명칭은 수개청으로 나오며 ‘도감’이 설치되었다거나 도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이후 건축공사 관련 의궤를 보면 통상 공사 규모가 크거나 비중이 있는 공사일 경우 ‘도감’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이고 도감의 제조는 영의정이나 좌의정 또는 왕실의 대군 등이 맡고 그 아래 호조, 공조판서 등이 포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 규모가 크지 않으면 영건청, 수개청 등의 칭호를 사용하고 제조도 판서 급에서 맡는다. 집상전수개의 경우에도 단일 전각을 짓는 것이고 공사를 가급적 크게 확대하지 않기 위해 경덕궁 전각을 철거해서 자재를 재사용하는 것이어서 수개청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공사 관련 의궤의 명칭은 정확히는 ‘집상전수개청의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지가 망실된 상황에서 어떤 연유로 수개도감의궤라는 제목이 등장했는지 아무 곳에도 설명이 없어서 무어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입수된 전체 105면의 자료가 표제를 포함한 앞부분의 결락 외에는 더 이상의 결락이나 탈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앞뒤의 연결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간혹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감결질은 정월17일 기사가 끝난 뒤에 지면에 공백을 남기고 다음 면에는 ‘殿額門號書寫官’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각종 문 이름과 이를 쓰는 관리 이름이 나오는데 앞부분 감결질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어서 의문이 남는다.⁵⁾

『집상전수개도감의궤』의 가치

책의 표지가 망실되고 일부 문장의 연결에 애매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집상전수개도감의궤』는 17세기 궁궐건축의 공사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학술자료임에 달라짐이 없다. 이 의궤가 지닌 학술적 가치는 앞으로 의궤의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확실하게 평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일독한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이 의궤를 통해서 이제까지 「동궐도」의 그림만이 전하고 있는 집상전의 실체에 대

5) 품목질의 경우에도 무신 정월5일의 기사를 서술하면서 앞에는 내용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同日’이라는 항목을 정하고 행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을 기술하는데 비해서 네 번째 ‘동일’ 기사에서 면이 넘어가면서 앞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덕궁집회전에서 자재를 철거해 오되 부족한 것은 외감소재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해서 쓰고 실제 들어간 수효를 나열해서 기록한 질이라고 적고 외감진배를 비롯한 각 관청이 가지고 있는 자재와 개인에게서 취한 물량을 적고 있다. 또한 그 마지막에는 ‘都已上’ 즉 이상의 모든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항목에서 앞에 열거한 자재를 모두 열거하였다. 다만 ‘도기상’에 적힌 자재는 앞의 각 기관이 보유한 것들에는 나오지 않는 자재들 즉, 대아련, 중앙아련 방초, 잡상, 연가 등이 있다. 따라서 정월 5일 기사와 부족자재의 나열 사이에 낙장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는 원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무어라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후일의 숙제로 남긴다.

해 크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동 의궤에 의하면 집상전은 ‘좌우익실을 합해서 28칸이며 행각이 11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익실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안팎은 화려한 단청이 칠해져있었다. 건물은 대조전과 마찬가지로 양상도회 즉 지붕마루에 양성을 바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궐도에 묘사되어 있듯이 집상전은 대조전과 거의 같은 건물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 건물이 창덕궁 내에서도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지붕이 무량각이라고 하는 용마루가 없는 건물이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⁶⁾ 『집상전수개도감의궤』는 집상전을 짓는데 소요된 자재의 일부와 공사에 동원된 장인들의 명단을 상세히 수록해 놓았다. 특히 자재는 경덕궁의 집회전을 철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으로 부족한 목재와 기와, 철물들은 별도로 제작하거나 관청 보유물 및 민간 보유물 등을 수합해서 충당했다. 아울러 장인들 가운데는 특히 단청 일을 하는 화승들을 거의 전국에서 동원해 왔다. 화승들이 각 지역에서 1명 또는 2명씩 동원된 점으로 미루어 각 도 관찰사가 각 지역에서 1, 2명씩을 차출했음을 알 수 있다. 장인들은 대부분 당시 궁궐공사에 자주 참여하던 숙련된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는 집상전 건물이 주변의 다른 궁궐전각과 형태나 기술측면에서 거의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지어졌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의궤가 확보됨으로 해서 17세기 후반 건축기술의 연구가 한층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축기술사 측면에서 볼 때 17세기는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건축은 각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시대적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특히 17세기는 16세기말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의 여러 가지 변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체 조선시대 건축의 흐름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는 시기이다. 현재 17세기의 건축관련 의궤는 10편 정도가 남아있다. 이 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한편의 사료라도 아쉬운 현 시점에서 1667년에 집상전을 지으면서 작성된 『집상전수개도감의궤』가 갖는 학술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의궤가 국내에 입수되고 연구자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도미니크 바르조교수와 박랑리박사의 공이 컸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쉽게 자료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두 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의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조선시대 건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힘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은 현재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은 물론이지만 조선시대 건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행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왕에 입수된 책자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귀한 자료만큼이나 소중한 학술적 성과가 여러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할 따름이다.(동 의궤의 복사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575-5983 또는 moonia@paran.com 정정남박사에게 문의바랍니다)

6) 무량각 건물은 대조전 외에도 창경궁 통명전이나 경복궁 강녕전 등에서 볼 수 있다. 왜 어떤 건물은 용마루가 없고 어떤 건물은 용마루가 있는지 아직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의 수준이다. 집상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고찰을 통해서 무량각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